

人文論叢

83권 3호

2026년 8월

# 일반 논문

[www.kci.go.kr](http://www.kci.go.kr)



# 고려 국조신화 역사화·신화화 비교 연구

지해인\*

「고려세계」와 『제왕운기』를 중심으로

**초록** 「고려세계」(高麗世系)는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을 바탕으로 『고려사』(高麗史)에 수록된 고려의 건국·국조신화로, 그간 그에 대한 각각적인 연구가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일한 계보를 다룬 『제왕운기』(帝王韻紀) 하권의 「본조군왕세계 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를 「고려세계」와 함께 읽어 낸 신화학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의 서사 형식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신화’ 개념을 통해 두 텍스트에 나타난 찬자의 신화화·역사화 방식을 비교하고, 이로써 텍스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신화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제왕운기』가 신이사관(神異史觀)에 입각한 서술, 가령 호경(虎景)의 명시적 신화(神化), 당 중 계보 편입의 옹호, 지리산성묘의 명령에 따른 도선(道詵)의 도참 등을 통해 고려 국조신화에 대한 신화화·정당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반면, 『고려사』 「고려세계」는 『편년통록』의 신이성을 황탄(荒誕)하다고 불신하면서도, 역설적으로 텍스트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유교적 역사화의 여지를 선택적으로 전유하여 탈신성화의 도구로 삼았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호경의 암시적 신화, 강충(康忠)의 인격적 모계 명시, 작제건(作帝建)의 금기 위반, 도참의 역사적 환원 등은 단순히 『편년통록』의 편찬 의도를 답습한 것이 아니며, 이는 ‘이제현의 찬’과 민지(閔漬)의 세전(世傳) 등 강력한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을 배치함으로써 신화의 역사화·탈신성화를 의도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텍스트의 변별적인 서술 태도는 당대의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 신화를 개편하여 지배 체제를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려 한 찬자들의 역동적인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산물임을 보여 준다.

**주제어** 신화, 건국신화, 역사화, 「고려세계」, 『제왕운기』

## 1. 서론

「고려세계」(高麗世系)는 고려 전기 김관의(金寬毅)가 편찬한 『편년통록』(編年通錄)에 기반하여 『고려사』(高麗史)에 수록된 고려의 건국·국조신화화,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그간 적잖이 축적되어 왔다. 「고려세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문학적 접근과 역사학적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sup>1</sup> 각각 「고려세계」의 서사 구조와 그 역사적 함의를 고찰함으로써 고려 건국·국조신화를 둘러싼 여러 담론을 확장하는 데 혁혁한 성과를 적축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개별 화소를 전대의 설화와 비교 분석하는 데 집중한 정중환(1963), 박두포(1965) 등의 초기 연구부터, 「고려세계」에 고구려와 신라와 유관한 신화소들이 변개·수용되었으며 그 서사의 특징으로 투쟁의 결여와 혈통의 신성화를 지목할 수 있음을 논한 이강옥(1987), 선노(旋溺)와 매몽(買夢)의 설화 요소를 통해 「고려세계」가 기존 논의와 달리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신라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음을 논구하고, 이러한 정치의식이 의종에게 『편년통록』을 채택해 진상한 김영부(金永夫)가 개경 세력이었던 것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는 허인옥(2003), 고려 전기와 중기의 삼한일통의식(三韓一統意識)이 변천을 겪었음을 주지한 상태에서 그 원형과 변형을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며 계보 변형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세계」를 논구한 윤경진(2023)과 같은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고려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이 마련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고려세계」를 동일한 계보를 다룬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하권(下卷)의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와 대조하며 신화학적으로 독해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익히 논의되바, 신화는 “한번 만들어진 뒤에 그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

1 윤경진(2023), 「『高麗世系』의 서사와 역사계승의식」, 『사림』 84, 수선사학회, p. 122.

라 변화하며 기록되는 시기의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상황을 반영<sup>2</sup>하는 것이다. 특히 건국 신화는 그것이 뒷받침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기에 “후대에 옮겨 적거나 다시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의 정치·사회상이나 윤리관 등에 의해서 건국신화의 내용과 요소가 첨삭되었을”<sup>3</sup> 공산이 대체로 크다. 예시로 『제왕운기』 하권의 경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고려 태조의 세계 설화(世系說話)를 다루고 있는데, 「고려세계」와 상통하는 내용임에도 그 세부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제왕운기』가 『고려사』와 다른 시대적·정치적 맥락과 편찬 의도를 지니는 문헌이기에 ‘태조의 선세’(先世)라고 하는 동일한 사건을 다룸에도 화소(話素)를 포함, 개별 요소에 대한 부각·생략 지점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정치적 변화 도모를 위해 신화의 수정·변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종교학자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의 지적을 고려하면,<sup>4</sup> 이는 꼼꼼한 신화학적 비교·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편년통록』 내에 기록된 ‘고려세계’만이 고려 왕실의 유일한 기록인 듯이 채택되어 의종에게 진상되었다는 것은 『편년통록』의 편찬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sup>5</sup> 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고려하면, 링컨의 관점에 따른 재독해가 필수적으로 보인다. 당대 태조 선대 계보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으로 『편년통록』 외의 문헌들이 분명히 존재하였는데,<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편년통록』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고려사』

2 문창로(2014), 「『韓國 古代 建國神話』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4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 56.

3 문창로(2014), p. 56

4 Bruce Lincoln (1989), *Discourse and the construction of society: Comparative studies of myth, ritual,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25.

5 허인옥(2003),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 『사총』 5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p. 13.

6 이정훈(2017), 「고려시대 ‘고려세계(高麗世系)’에 대한 기록과 인식」, 『역사와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p. 22.

편찬에 활용한 것은 “김관의가 방집하였던 제가의 사축문서에 비해 『편년통록』이 체계적으로 고려세계를 언급하고 있었”다거나 “『편년통록』과 같은 방식으로 고려세계를 언급한 책 중에서 『편년통록』이 가장 연대가 빨랐기 때문”<sup>8</sup>이라는 이유 외에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려사』의 ‘찬수고려사범례’(纂修高麗史凡例)의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사』의 찬자가 기본적으로 「고려세계」의 저본이 된 『편년통록』과 그 저자인 김관의에 대한 이제현(李齊賢)의 불신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임에도 『편년통록』을 적극 인용한 지점은 다대한 주목을 요한다.

고려의 세계(世系)가 잡기(雜記)에 나타나는 것은 대개 다 황탄(荒誕)하므로 이제 황주량(黃周亮)이 편찬한 『실록(實錄)』의 삼대추증(三代追贈)으로서 정설을 삼고 잡기에 전하는 바를 덧붙여 기록해 따로 세계를 짓는다.<sup>9</sup>

『편년통록』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이제현의 찬’에 서술된 것처럼, 신이성에서 비롯된 황탄함 및 사료의 근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관의는 의종 때의 하급 관리이며 또 태조와 260여 년 떨어져 있으니, 어찌 당시의 실록을 버려두고서 후대에 근거함이 없이 마구 뽑은 책을 믿으랴?<sup>10</sup>

7 이정훈(2017), p. 24.

8 이정훈(2017), p. 24.

9 “高麗世系, 出於雜記, 率皆荒誕. 今以黃周亮所撰實錄, 追贈三代爲正, 附以雜記所傳, 別作世系.”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고려사』 편찬 범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s04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s04r) (접속일: 2026. 8. 25.).

10 “寬毅乃毅宗時微官, 且去太祖二百六十餘年, 豈可舍當時實錄, 而信後代無稽雜出之書耶?”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s02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s02r_0100) (접속일: 2026. 8. 25.).

역시 선록(禪錄)과 잡기(雜記) 두 설이 **모두 근거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  
 [...] 『태조실록(太祖實錄)』은 바로 정당문학 수국사(政堂文學 修國史) 황주량(黃周亮)이 편찬한 바이다. 황주량은 태조의 손자인 현종(顯宗) 때 벼슬하였으므로 태조 때의 일을 직접 듣고 본 것이 있었으니 그 〈삼대(三代)를〉 추중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썼을 것이다**.<sup>11</sup>

그렇다면 『고려사』의 찬자는 어떠한 연유에서 ‘후대에 근거함이 없이 마구 뽑은 책’이라 폄훼된 『편년통록』을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동일 세계를 다룬 여타 장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고려세계」가 수록된 『고려사』는 조선 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한편 『편년통록』은 고려 “의종대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설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려세계를 미화함으로써 왕권의 신성화 및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편찬된”<sup>12</sup>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편년통록』은 “왕조의 기초를 받드는 신성성과 그들의 위대한 행적 및 이데올로기를 담”<sup>13</sup>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조선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이미 유학이 정치철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sup>14</sup>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비교적 역사화된 서술 방식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고려사』 찬자의 의중에 맞았기 때문에 적극 활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이미 일정 정도 역사화의 균열이 내재된 『편년통록』의 서사 구조를 「고려세계」의 찬

11 “亦是禪錄。雜記二說皆無所據，不足信也。[...] 太祖實錄，乃政堂文學修國史黃周亮所撰也。周亮仕太祖孫顯宗之朝，太祖時事，耳目所及，其於追贈，據實書之。”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접속일: 2026. 8. 25.).

12 이정훈(2017), p. 27.

13 장영희(2009), 「『高麗世系』『編年通錄』의 敘事性 研究」, 『漢文學報』 21, 우리한문학회, p. 204.

14 김미란(1996), 「建國神話의 受容樣相과 그 意味: 高麗時代를 중심으로」, 『畿甸語文學』 10-11,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p. 708.

자가 선택적으로 전유함으로써, 고려 왕실의 계보를 효과적으로 역사화하고 탈신성화하는 담론적 도구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령 뚜렷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려세계」의 찬자가 『편년통록』을 주된 전거로 채택함에 따라 『제왕운기』 등 동일 계보를 다룬 타 문헌에 비해 비교적 역사화된 서술 층위가 그 바탕을 이루게 되었음은 자명하다. 여기에 찬자의 대항 담론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고려세계」는 저본이 지닌 역사화의 여지를 적극 활용한 형국이 되었다.

이때, 「고려세계」는 사실상 『편년통록』을 대거 인용한 것이 아니냐는 정당한 지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편년통록』이 현전하지 않기에 「고려세계」의 찬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증거 부재의 논증에 의존하기보다는, 「고려세계」가 『편년통록』을 인용했다고 해서 원문의 의도까지 고스란히 투사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겠다. 「고려세계」는 『편년통록』과 달리, 고려 왕실의 신성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일 리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 나아가 찬술의 도가 달라지면 텍스트는 또 다르게 읽히는 법이다.

본고에서는 브루스 링컨의 ‘구별의 체계를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 서사 형식의 이데올로기’<sup>15</sup>로서의 신화 개념을 활용해 「고려세계」와 『제왕운기』 두 텍스트에 나타난 찬자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투영된 서사상 구체적인 모티프의 수정·변용 지점을 찾아내고, 그를 역사학적으로나 서사학적으로가 아닌, 신화학적으로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서사 내 담론의 언어적 전략에 따른 자연화 기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권위 및 사회 질서의 재편 의도를 고찰하는 과정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증적 비판을 주로 수행하는 역사학적 접근과는 변별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신화라는 담론을 분석하면서, 담론 외부에 존재하는 원천적 사건에 대해 추궁

15 브루스 링컨(2009),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서울: 이학사, p. 147.

하지 않는”<sup>16</sup> 대신, 사건 및 인물의 ‘신화화’와 ‘역사화’라는 저자의 의도가 서로 다른 텍스트에 반영되어 어떻게 담론을 재구성하는지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신화화’는 즉, “역사적 사건을 자신들의 신화적 논리에 의거하여 변환”<sup>17</sup>하여 신성한 사건 또는 담론으로 재구성한 것을 말한다. 변환의 핵심은 곧 그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 일이며 신성한 일이었는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기제”<sup>18</sup>인데, 이는 “인간의 이성에 부합되도록 신화가 합리적으로 해석되거나 개조되어 역사로 변하게 되는”<sup>19</sup> 신화의 ‘역사화’와는 대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두 문헌 간 신화화·역사화 양상 비교

『제왕운기』(1287)는 이승휴의 저술로, 그 표문(表文)에서 이른 바와 같이 “중국[中朝]은 반고(盤古)로부터 금국(金國)에 이르기까지, 동국(東國)은 단군(檀君)으로부터 우리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sup>20</sup> 중국과 동국의 역사를 역사시(詠史詩)로 서술한 사찬사서(私撰史書)의 하나이다. 일찍이 『제왕운기』는 “원간섭기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역사서술의 사례로”<sup>21</sup> 지속적으로 거

16 김보현(2006), 「조선 건국 담론의 신화화 방식 연구:『룡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태조실록총서(太祖實錄總書)』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1, 시학과 언어학회, p. 210.

17 김보현(2006), p. 209.

18 김보현(2006), p. 210.

19 이유진(2003), 「끊임없는 담론: 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중국어문학논집』 24, 중국어문학연구회, p. 519.

20 “中朝, 則從盤古而至於金國, 東國, 則自檀君而洎我本朝”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바치는 표문(帝王韻紀進呈引表)”,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501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501r)(접속일: 2026. 8. 25.).

21 박인호(2011),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p. 365.

론되면서, 주로 사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제왕운기』는 독자적 설화를 강조함으로써 원(元)의 정치적 지배에 대해 항해 고려의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음이 이미 논구된 바 있고,<sup>22</sup> “국왕의 위엄과 왕조의 계통성을 강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서술에서는 적지 않게 신이적인 측면을 용인”<sup>23</sup>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저술함에 있어 그 내용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취사하였다는 뜻이 된다.

특히 신이한 측면을 단순 용인한 것을 넘어 옹호하기까지 한 것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신화화’의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링컨에 따르면 신화를 활용한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주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sup>24</sup>

- ① 신화의 권위 및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역사 또는 전설의 지위로 박탈하고, 그로써 신화가 갖는 사회적 재구성의 능력을 박탈한다.
- ② 역사·전설·우화에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신화의 지위로 격상시키고, 이로써 사회적 형태의 구성 도구로 삼는다.
- ③ 기존의 신화의 새로운 해석의 갈래를 제시하거나 세부를 수정함으로써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동 그리고 사회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이제 본고에서는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와 『고려사』 「고려세계」를 꼼꼼히 비교해 두 텍스트에 나타난 역사화와 신화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기저에 깔린 찬자 및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이창식(2019),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인용된 설화의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54, 동아시아고대학회, p. 142.

23 박인호(2011), p. 389.

24 Bruce Lincoln (1989), p. 25.

## 2.1. 신이 된 호경, 사라진 호경

호경(虎景)은 태조의 6대조로 제시되는 인물로, 『제왕운기』 「본조군왕 세계연대」와 『고려사』 「고려세계」 양측 모두에서 그 행적이 자세히 묘사된다. 호경은 두 텍스트 모두에서 ‘신(神)에 준하는 존재’ 혹은 ‘신 그 자체’로 화한 것으로 서술되는데, 두 텍스트의 해당 대목, 구체적인 묘사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호경의 신화(神化) 대목의 전후를 발췌한 것이다.

**호랑이가 변신하여 여인이 되어** 말하기를, “나는 과부로 이 산에 살고 있는데, 원컨대 당신과 함께 신정(神政)을 다스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혼인하여 신(神)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호경이라 이름하였고, <그> 산은 구룡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대저 산정(山精)을 근본으로 한 것**이다.<sup>25</sup>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호경에게 혼담을 건넨 여인은 호랑이가 변신하여(虎變爲女)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둘의 혼인의 결과로 호경은 ‘구룡산천왕’(九龍山天王)이라는 이름의 ‘신’이 된다(因婚而爲神). 이승휴는 ‘산정’(山精)이라는 형이상학적 기운에서 그 근본을 찾고 있는데(蓋本山精也), 호랑이가 전통적으로 산신의 현현으로서 신성히 여겨졌음을 함께 감안했을 때,<sup>26</sup> 이승휴가 굳이 산의 정기에 근거함을 강조한 것은, 신라 이래의 산악신앙이 갖는 권위를 끌어들이므로써 호경 대의 신성성을 부각하고자

25 “虎變爲女曰, “我寡居此山, 願與君同理神政.” 因婚而爲神. 由是, 名虎景, 而山名九龍. 蓋本山精也.”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26 장정태(2010),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2, 한국사상문화학회, p. 145.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반면 『고려사』 「고려세계」에서는 호랑이는 등장하지만 호랑이가 여인으로 변신하는 설화적 모티프는 나타나지 않는다.

호경이 나가 호랑이와 싸우려고 하였는데, 호랑이는 갑자기 보이지 않고 굴이 무너져 아홉 명은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 먼저 산신에게 제를 올렸는데 그 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과부로서 이 산을 다스린다. 다행히 성골장군을 만나, 부부가 되어서 함께 신정(神政)을 다스리고자 하니 이 산의 대왕으로 봉하기를 청한다.’라고 하고, 말을 마치자 호경과 함께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sup>27</sup>

이강옥의 지적처럼 “『고려세계』에서는 虎가 女山神과 모호하게 연관되고 있”<sup>28</sup>을 뿐이며, “虎가, 山神에게 제사지낼 때 現神하여 虎景에게 求婚하는 女山神과 동일한 것으로 암시되어 있”<sup>29</sup>을 뿐이다. 이는 “노골적인 신들의 활동과 혈통의 직접적 관계 노출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sup>30</sup>기 때문이라는 기존 분석과도 어느 정도 상응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산신이 제(祭) 가운데 모습을 보여[其神見] 구혼하는 대목 역시 그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였다’[見]고 했을 때 편찬자가 실제로 의미하고자 했던 바를 비록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꼭 산신이 실제 현신

27 “虎景出, 欲與虎鬪, 虎忽不見, 而竇崩, 九人皆不得出. [...] 先祀山神, 其神見曰, ‘予以寡婦主此山. 幸遇聖骨將軍, 欲與爲夫婦, 共理神政, 請封爲此山大王.’ 言訖, 與虎景俱隱不見.”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하늘이 호경을 살리고 호경은 산신이 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5s02r\\_002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5s02r_0020) (접속일: 2026. 8. 25.).

28 이강옥(1987), 「고려국조신화 「고려세계」에 대한 신고찰: 신화소(神話素) 구성과정에서의 변개양상과 그 현실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3(3), 일지사, p. 101.

29 이강옥(1987), p. 102.

30 나희라(2025a), 「여신 숭배의 전통과 고려시대 성모 인식」, 『여성과 역사』 42, 한국여성사학회, p. 106.

한 것으로 독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가령 합리적인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개인적 체험의 영역으로 축소해 읽어 볼 수도 있겠다. 또한 「고려세계」에서는 호경의 거취가 온데간데없었다는 묘사[與虎景俱隱不見]만이 있을 뿐, 호경이 신이 되었다는 언술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부부가 되어 산의 대왕으로 봉함을 청한다는[請封爲此山大王] 산신의 요청에 비추어, 호경이 산의 대왕, 사실상의 신선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호경의 일대기를 다룸에 있어 양 문헌은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두 텍스트 모두 기본적으로 “호경을 신성화함으로써 신성화된 호경이 낳은 아들 강충으로 이어지는 왕건의 피의 계보가 신성화”<sup>31</sup>되게끔 하고 있으며 “시기적인 차이를 두고 원천이 다른 신화군으로부터 차용되어 첨부되었을 가능성”<sup>32</sup>이 있는 산신의 존재를 통해, “여신 숭배 관념에서 비롯된 상징과 신화적 요소들은 원초적 모성의 창조적 에너지와 신성성을 왕실 세계에 불어넣어”<sup>33</sup> 혈통의 신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언어를 따져 봤을 때,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는 산악신앙 전통의 권위를 끌어오면서 동시에 호경이 신이 되었다고 명시함으로써 계보 신화화의 심화를 획책하고, 반대로 「고려세계」는 『편년통록』의 기록을 수용하여 호경의 신화(神化)를 일단 신이한 일로 묘사는 하고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술을 피함으로써 그 신화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계보의 역사화를 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31 조현설(2000), 「고려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p. 11.

32 이강옥(1987), p. 104.

33 나희라(2025a), p. 106.

## 2.2. 강충의 친모는 누구인가?

호경의 아들 강충(康忠)은 그간 “신성화한 부친의 人格의 아들로 개성에 터전을 마련하였다”<sup>34</sup>거나 “여산신의 神性이 호경에게 轉移되었다고, 호경이 인간인 옛 妻와 동침함으로써, 그 아들인 강충에게 神性이 轉移되었다”<sup>35</sup>는 등 호경의 신성을 이은 것으로 논의되거나, “주인공의 영웅성이나 그 혼인의 신성함을 부각시키기에는 부족하다”<sup>36</sup>는 식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호경이나 작제건(作帝建) 등 신이성이 도드라지는 「고려세계」 계보상의 여타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와 「고려세계」를 꼼꼼히 비교해 읽어 보면, 팔목할 만한 지점이 하나 드러난다.

휘는 진의(辰義)이고 시호(諡號)는 **정화왕후(貞和王后)**이다. 아버지는 원 덕대왕(元德大王)으로 휘는 **보육(寶育)**이다. 조부(祖父)는 송악군(松岳郡)의 사찬(沙粲)이고 휘는 **강충(康忠)**이다. 증조부는 **성골장군**이다.<sup>37</sup>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강충은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의 아들로 서술되며, 정화왕후(貞和王后)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주석을 통해 간략히 제시된다. 여기서 시호와 휘(諱) 등을 건조하게 나열할 뿐이라 간

34 장영희(2009), p. 190.

35 박대복(2011), 「『高麗世系』에 나타난 始祖神話의 性格과 文學史的 意味」, 『어문연구(語文研究)』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 142.

36 이지영(2016),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44, 동아시아고대학회, p. 175.

37 “諱辰義, 諡貞和王后. 父元德大王, 諱寶育. 祖松岳郡沙粲諱康忠. 曾祖聖骨將軍也.”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과하기 쉬운 점은, 바로 텍스트에서 ‘강충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굳이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세계」와 달리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호경이 옛 처와 교합하였다는 등의 언급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 만큼, 강충은 호경과 산신의 자식으로, 보다 신이한 존재로 상상될 여지가 있다.

호경(虎景)이 옛 부인을 잊지 못하고 밤마다 늘 꿈같이 와서 교합하여 아들을 낳으니 강충(康忠)이라 하였다.<sup>38</sup>

반면 『고려사』 「고려세계」의 경우, 호경이 산신 부인이 아닌 옛 부인과 교합하여 낳은 자식으로 강충의 인간적 계보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왕실의 카리스마는 日常化 되어야 하니 후손은 人格이어야 한다”<sup>39</sup>거나 건국신화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몸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태어나야 하기에, 어머니는 구체적인 실체를 가져야 한다”<sup>40</sup>는 등 기존의 해석이 있는데, 이 같은 견해를 따르자면, 「고려세계」의 계보 설정은 신화적이기보다는 유교 사관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것, 즉 보다 역사화된 서술로 볼 수 있겠다.

앞선 박대복의 지적처럼 「고려세계」의 강충은 산의 대왕이 된 호경의 자식이므로 그 계보에 있어 일면 신성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신이 된 호경, 그리고 호경과 부부의 연을 맺은 여인의 자식으로 독해할 수 있는 강충이 갖는 신성성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소하다고 볼 수 있겠다.

38 “虎景不忘舊妻, 夜常如夢來合, 生子曰康忠.”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호경이 강충을 낳고 강충의 아들 보육이 신이한 꿈을 꾸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3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30)(접속일: 2026. 8. 25.).

39 장영희(2009), p. 189.

40 오세정(2015), 「고려 건국신화의 여성인물 연구」, 『우리문화연구』 48, 우리문화회, p. 29.

### 2.3. 금기의 위배, 신화시대의 종언

「고려세계」가 담지한 신성성에 대한 연구는 고려 국조신화의 역대조들이 결혼을 통해 여계(女系)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구성을 취하였다는 관점<sup>41</sup>부터, 풍수설을 고려 건국신화의 서사 구성 원리로 규정하고 천명(天命)이 지명(地命)의 형태로 간접화되어 왕권의 신격화를 이루었다고 본 관점,<sup>42</sup> “여신들은 왕실 계보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라지는 방식으로 정리”<sup>43</sup>되었다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 누차 지적되어 온 것처럼 「고려세계」의 주인공들은 “외부인과의 결합을 통해 다른 존재의 신성 자질을 수용”<sup>44</sup>하는 작업, 즉 신성혼(神聖婚)을 대를 이어 반복하고 있는데, 「고려세계」에서 신적 세계와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작제건 설화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작제건 설화에서 작제건과 용녀(龍女)의 이류교혼(異類交婚)은 주로 고려 왕가 혈통의 신성성 및 정통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해석되며<sup>45</sup>, “神異한 혼인담을 통해 구현된 왕가의 신성성은 이후 ‘龍孫意識’의 정착을 통해 지속되고 재창출”<sup>46</sup>된다. 작제건 설화의 신성혼은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와 「고려세계」 모두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텍스트에서 묘사되는 신성혼 이후의 이야기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늘 〈용녀는〉 작제건(作帝建)과 더불어 다짐하기를, **‘제가 용궁으로 돌아갈**

41 김열규(1977), 「고려왕조전승의 무속소」,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p. 94.

42 조현설(2000), p. 30.

43 나희라(2025a), p. 106.

44 오세정(2015), p. 16.

45 이지영(2016), p. 177.

46 이정란(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p. 14.

**때 삼가 엿보지 마십시오. 어긴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작제건이 몰래 엿보았더니 [...] 용녀가 돌아와 화를 내며 말하기를, ‘부부의 도리는 신의를 지킴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미 다짐을 저버렸으니 저는 여기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드디어 어린 딸과 더불어 **다시 용으로 변해 우물에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sup>47</sup>

상기 발췌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려세계」의 경우, 작제건이 금기를 위반하여 용녀가 신성의 세계인 용궁으로 귀환함으로써 신성과의 직접적 결합이 단절을 맞이한다. 한편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는 이러한 금기 위반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용왕이 다시 나와 사례하고, 용궁 안으로 그를 맞아들이고는 드디어 장녀를 처로 삼게 하였다.<sup>48</sup>

이러한 서사 내에서 금기의 위반은 신화의 시대의 종언과 역사의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일종의 문학적·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의 원초적 연합은 금기의 위반으로 말미암아 두 집단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작제건이 금기를 위반하여 용녀가 신성의 공간으로 회귀함으로써, 지상의 공간은 철저히 역사화되고, “왕건의 고려건국이라는 역사시대

47 “常與作帝建約曰, ‘吾返龍宮時, 慎勿見. 否則不復來.’ 一日, 作帝建密伺之, [...] 龍女還怒曰, ‘夫婦之道, 守信爲貴, 今既背約, 我不能居此.’ 遂與少女, 復化龍入井, 不復還.”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작제건이 약속을 어기자 용왕의 딸이 사라져버리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8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80)(접속일: 2026. 8. 25.).

48 “龍王復出謝, 引入深宮裏, 遂妻以長女”.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가 도래"<sup>49</sup>하면서 필멸의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전환되게 된다. 즉 「고려세계」의 편찬자들은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직면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서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금기의 위반을 그 방편으로 하여 신성의 공간과 세속적 공간을 재배치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금기 파괴는 고려 국조신화의 신성성을 약화시키고, 인간 군주의 독자적인 지배가 작동하는 역사의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서사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덧붙여 용녀의 신성성에 대해, 「고려세계」, 「이제현의 찬」에서도 대항담론(counter-discourse)으로서 비판적인 견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원록(姓源錄)』에 이르기를, ‘혼강대왕(昕康大王)【곧 의조】의 처인 용녀(龍女)는 평주(平州) 사람인 두은점(豆恩沾) 각간(角干)의 딸이다.’고 하였으니 곧 **김관의가 기록한 바의 것과는 다르다.**”라 하였다.

그리고 「고려세계」, 「이제현의 찬」에 나타난 『고려사』 편찬자의 다음 찬사 및 용녀의 일에 대한 평가 절하는 역사성 담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려세계」 역사화 작업의 강도를 한층 제고하고 있다.

홀로 이제현만이 『종족기(宗族記)』와 『성원록』을 근거로 잘못 전해진 것을 배척하였으니, **이제현은 당대의 명유(名儒)로, 어찌 본 바도 없이 가볍게 당시 임금의 세계(世系)를 의논하였겠는가? [...] 하물며 용녀의 일은 어찌 그 허황되고 괴이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할 수 있겠는가?**<sup>50</sup>

49 장영희(2009), p. 200.

50 “獨李齊賢援據宗族記·聖源錄，斥其傳訛之謬，齊賢一代名儒，豈無所見，而輕有議於時君世系乎？[...] 況龍女之事，何其荒恠，若是之甚邪？”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

### 3. 『제왕운기』의 신화화와 『고려사』의 대항 담론

#### 3.1. 당 숙종 계보의 이데올로기적 변론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는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그〉 누가 비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 황가(皇家)의 계보도 이에 더욱 기이하다 할 것이다.”<sup>51</sup>라는 문장으로 그 서두를 열며 『제왕운기』 전체를 관통하는 신이사관(神異史觀)의 일면을 암시하는데, 이러한 이승휴의 편찬 태도는 앞서 살펴본, 그리고 다음 「고려세계」 ‘이제현의 찬’에 나타난 편찬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선유(先儒)들은 이를 두고 의논하기를, ‘그 신하들이 〈그들을〉 따르느라 꾸며낸 것일 뿐이다.’고 하였다. 아아! 예로부터 임금의 세계를 논한 것들은 괴이한 것이 많고 간혹 억지로 끌어다 붙인 이야기도 있어 뒷날의 사람들이 의심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sup>52</sup>

이승휴가 비범한 황가(皇家)의 계보를 운운하며 직접적으로 고려 왕조의 신성한 권위를 변론하는 구체적인 대목은 바로 다음, 당 숙종과 관련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 숙종의 서사는 인종대 이후, 곧 「고려세계」

do?levelId=kr\_002r\_0100(접속일: 2026. 8. 25.).

51 “自古受命君, 孰不非常類. 惟我皇家系, 於此尤奇異.”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52 “先儒議之曰, ‘其臣子從而爲之辭, 以緣飾耳.’ 嗚呼! 自古論人君世系者, 類多恠異, 而其間或有附會之說, 則後之人, 不能不致疑焉.”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100)(접속일: 2026. 8. 25.).

가 『편년통록』에 수록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변형<sup>53</sup>으로 보이는데, 찬자로서 이승휴가 당 숙종의 계보상 편입이라는, 단순한 전설 또는 민담으로 실각할 수도 있는 담론에 대해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혹 『당서』에 명확한 문헌이 없어서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당의 사신(史臣)이 어찌 태자(副君)가 몰래 외국을 유람한 일을 교서(矯書)의 글에 적었겠는가? 〈그러니〉 명확한 문헌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sup>54</sup>

상기 텍스트를 보면, 이승휴가 당(唐) 숙종(肅宗)의 고려 왕가 계보 편입을 긍정할 때, 증거가 되는 문헌이 없다는 당대 지식인들의 비판이 있음(或以唐書無明文爲難者)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잘못되었다고(過矣) 단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승휴는 “어찌 태자(副君)가 몰래 외국을 유람한 일을 교서(矯書)의 글에 적었겠”냐며, 문헌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당 숙종은 또 다른 외래의 신성한 존재로서 시조 보육의 자리를 대신<sup>55</sup>하여 삽입된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하면, 이는 고려의 국조신화라는 신화 전체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변론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이승휴는 ‘당’(唐)이라는 중화의 권위를 고려 왕실로 전인함으로써 고려 왕실의 권위를 더불어 격상시키고 신성화시키고자 ‘문헌이 없다’는 합리적인 반박을 애써 부인한 것이다.

53 윤경진(2023), p. 144.

54 “或以唐書無明文爲難者，過矣。且唐之史臣，豈以副君潛遊外國之事，筆之於矯書之文耶？無明文，理然。”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55 윤경진(2023), p. 153.

한편 「고려세계」의 경우, 전체 서사의 열개는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민지(閔漬)의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인용한 대항 담론을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에 있을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왕과 교유하였던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일찍이 듣기를 왕의 선조께서 당 숙종에게서 나왔다고 하던데 어디에 근거한 바입니까? 숙종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대궐 문을 나오지 않았고 안녹산의 난 때 영무(靈武)에서 즉위하였으니 어느 때에 동쪽으로 와서 아들을 두기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니 **왕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답하지 못하였는데** 민지가 곁에 있으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잘못 쓰였을 뿐입니다. **숙종이 아니고 선종입니다.**’라고 하였다.<sup>56</sup>

상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세계」의 편찬자는 당 숙종과의 혈연이 역사적 사실과 상충됨에 ‘왕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대답하지 못한’(王大慚不能對)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앞서 김관의가 부정확한 문헌을 끌어온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고려사』의 찬자가 민지가 선종으로 정정했다는 ‘세전’(世傳)을 굳이 인용한 것에서 『“고려사” 찬자가 당 숙종의 사실성에 의문을 가졌음<sup>57</sup>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역사화 작업을 수행하고자 했다고 언술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고려세계」의 편찬자는 외래의 신성한 존재로서 당 숙종의 계보 편입이라는 기존 신화의 열개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써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동의

56 “忠宣王在元，有翰林學士從王遊者。謂王曰，‘嘗聞王之先出於唐肅宗，何所據耶？肅宗自幼未嘗出閤，祿山之亂，卽位靈武，何時東遊，至有子乎？’王大慚不能對，閔漬從旁對曰，‘此我國史誤書耳。非肅宗，乃宣宗也。’”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작제건의 탄생”,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s02r\\_005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s02r_0050)(접속일: 2026. 8. 25.).

57 윤경진(2023), p. 141.

교체를 꾀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 오류에 대한 부끄러움의 감정을 통해 고려 건국·국조신화가 갖는 권위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탈신성화하여 계보 자체의 역사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고려사』 「고려세계」에서 태조 선대 계보의 신이한 요소를 아예 삭제해 버리지 않았는가. 일차적으로 그 이유는 「고려세계」, ‘이제현의 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된 바와 같이, 신이한 문헌을 전적으로 신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제 『실록』에 실린 바 삼대를 추증한 것을 정설로 삼고 김관의 등의 설도 또한 세상에 전해 내려온 지가 오래되어 그런 까닭에 아울러 붙여둔다.”  
라 하였다.<sup>58</sup>

또한 이정훈(2017)에서 지적한 것처럼, 고려시대에 “태조 선조의 행적, 특히 『편년통록』에서 언급된 태조의 행적에 의거한 산명, 지명, 유적지 등이 만들어”<sup>59</sup>지고 태조의 선대가 역사적 인물로 화하면서, “『편년통록』을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고려사』를 편찬할 때 그대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던 것”<sup>60</sup>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3.2. 도선의 도참에 대한 신화화·역사화

고려 국조신화의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바로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풍수 담론의 활용이다. “풍수도참적 속성이 고려전기에는 찾아보기

58 “今以實錄所載追贈三代爲正，而寬毅等說，亦世傳之久，故并附云.”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100) (접속일: 2026. 8. 25.).

59 이정훈(2017), p. 49.

60 이정훈(2017), p. 47.

힘든 것<sup>61</sup>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강옥(1987)에서는 의종(毅宗) 대를 전후로 「고려세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논한 바 있는데, 도선과 풍수 담론의 활용이 「권력 정통성의 토대 강화와 정치사회적 통치 합리화의 수단」<sup>62</sup>이었다는 데에는 선행 연구상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고려세계」와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의 두 텍스트 모두 ‘도선’을 등장시킴에는 차등이 없는 와중, 유심히 살펴보면 변별되는 미묘한 지점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는 도선국사(道詵國師)의 도참(圖讖)의 동기가 모종의 ‘신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성모(聖母)가 도선국사(道詵國師)에게 명하여, 이곳을 명당이라 이르게 하고는, 이곳을 종제지지(種祿之地)로 삼았으니, 이로 인하여 왕(王)을 성(姓)으로 삼게 되었다.<sup>63</sup>

상기 인용구에서 이승휴는 성모를 지리산천왕으로 부연[智異山天王也]한다. 지리산은 신라 때 오악(五岳) 중 남악(南岳)으로 국가적 제사가 이루어진, 고래로부터 신령스럽게 여긴 산으로, “고려 때에도 도선(道宣)에게 송악의 명당을 계시해주었다고 해서 중요시”<sup>64</sup>되었다. 이때 이승휴가 송악산도 아닌 ‘지리산천왕’의 권위를 빌린 이유는 도선과 그의 풍수사상이 지리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sup>65</sup> “지리산과 그 산신이 고려시대 이

61 이강옥(1987), p. 112.

62 최원석(2010), 「지리산권의 도선과 풍수 담론: 풍수지리설의 사회적 재구성」, 『남도문화연구』 1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p. 242.

63 “聖母命詵師, 指此明堂謂, 斯爲種祿田, 因以爲王氏.”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64 한승훈(2021), 『무당과 유생의 대결』, 사우, p. 58.

65 최원석(2010), p. 240.

래 정치사회적 담론 형성에 깊이 관여했었음을 짐작<sup>66</sup>할 수 있는데, 「고려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리산성모의 존재를 서술에서 배제 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때 동리산파(桐裏山派)의 조사(祖師) 도선(道詵)이 당(唐)에 들어가 일행(一行)의 지리법(地理法)을 얻고 돌아왔다. [...] 내년에는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왕건(王建)이라 지으시오.'라고 하였다.<sup>67</sup>

「고려세계」에서 도선은 신성의 권위를 입은 것이 아닌 단순히 당(唐)에서 지리법을 얻고 돌아온 것으로, 도참의 성격을 역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태조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를 지리산성모로 추대하여 존사(尊祀)”<sup>68</sup>하였음을 감안하면, 혹은 나희라(2025b)의 견해에 따라 고려시대부터 위숙왕후를 지리산성모와 동일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sup>69</sup> 산악숭배, 나아가 지리산성모에 대한 신심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므로,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 지리산성모라는 신적 권위를 포함시킨 것은 건국의 당위성 및 계보의 신성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화화 욕구의 발로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보다 후대에 편찬된 『고려사』 「고려세계」에서 지리산성모의 존재를 굳이 삽입하지 않은 것

66 나희라(2025b), 「지리산성모 위숙왕후설에 대한 고찰」, 『남도문화연구』 56,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p. 49.

67 “時桐裏山祖師道詵入唐，得一行地理法而還。[...] 明年必生聖子，宜名曰王建。”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용건이 태조를 낳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9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02r_0090) (접속일: 2026. 8. 25.).

68 김지영(2010), 「지리산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지리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4, 한국역사민속학회, p. 323.

69 실제로 이론(異論)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왕의 어머니에게 성모라는 존칭 수식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김종직(金宗直)이 『제왕운기』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리산성모를 위숙왕후와 동일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희라(2025b), pp. 53-54.

은 “신화적 언어관에 대한 당대의 의문과 부정에 대한 하나의 담론적 우회로”<sup>70</sup>로서, 고려 왕조의 신성한 계보를 약화시키고 역사화하고자 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이는 앞서 링컨이 제시한, 신화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주창하는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 필요에 맞추어 기존 서사를 개변하는 과정으로, 새로이 건국된 조선에 향해야 할 신들의 지지가 망국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고려세계」는 지리산성모라는 신성성에 의한 신화적 권위를 철회하고, 유가적 자세인 문헌 중심의 합리적 해석의 틀로써 고려 국조신화를 역사의 시대에 안착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후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조선시대에는 지리산성모의 국모적 위상이 점차 사라지고, 지역의 수호신으로서의 위상만 남게”<sup>71</sup>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고려세계」에 나타난 역사화 경향과 조선의 음사(淫祀) 폐지 등의 정책과 맞물려 귀결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제현의 찬’에서는 다음과 같이 태조의 권위를 빌려 옴으로써 역사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의는 말하기를, ‘[...] 그런 까닭에 태조께서는 이로 인해 왕씨(王氏)를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그 성을 고쳤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아! 우리 태조께서 이것을 하였다고 여기는가?<sup>72</sup>

70 조현설(2000), p. 29.

71 김지영(2010), pp. 333-334.

72 “金寬毅云 [...] 故太祖因姓王氏. [...] 父在而子改其姓, 天下豈有是理乎? 嗚呼! 其謂我太祖爲之乎?”.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 (접속일: 2026. 8. 25.).

이는 인류으로 합리적 반증을 시도하고 있다고 기존 연구<sup>73</sup>에서 언급되기도 한 대목이다. 요컨대, 유교적 천리(天理)를 끌어오고, 고려 왕가 정통성의 뿌리인 태조가 이러한 패륜적 비행을 범했을 리가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반대 진영이 가할 수 있는 반박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성리학적 인식론에서 비롯된 이제현의 이러한 ‘탈신화적 역사관’과 뚜렷이 대비되는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 속 이승휴의 정당화 담론은 다음과 같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자고(自古)로 성인(聖人)은 본종(本宗)에 얽매이지 않고 덕(德)으로 성씨를 세우는 것은 오래되었다. 순(舜) 임금의 본종은 요씨(姚氏)이나 규예(濞訥)에서 일어났으니, 성씨를 규(嬌)로 하였고, 광경(光耿)의 본종은 맹씨(孟氏)이나, 오얏[李]을 가리켜 성씨로 삼았으며 공자(孔子)의 본종은 자씨(子氏)이나 어머니가 을조(乙鳥)에 감화하여, 겸하여 그 밝음을 취해 공(孔)을 성씨로 삼은 것이 이것이다. 지금 또한 그러한 것인가?”라고 하였다.<sup>74</sup>

이승휴는 순 임금과 공자 등 성인(聖人)의 예를 들어 왕(王) 씨로 성씨를 바꾼 것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논쟁에 대한 반박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로써 이승휴는 고려 왕가의 계보로서 ‘고려세계’의 신성성을 옹위하고 있는 것이다.

73 조현설(2000), p. 25.

74 “史臣曰, “自古聖人, 不係本宗, 而以德, 立姓者, 尙矣. 如帝舜之本, 姚氏, 而興於濞訥, 姓嬌, 光耿之本, 孟氏, 而指李, 爲姓, 仲尼之本, 子氏, 而母感乙鳥, 兼以取明爲孔者. 是也, 今亦然歟.”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 (접속일: 2026. 8. 25.).

## 4. 결론

『고려사』 편수 과정에서 찬자는 “서법(書法)은 『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兩漢書]와 『원사(元史)』를 따라서 사실(事實)과 언사(言辭)를 모두 적는다”<sup>75</sup>든가, “비록 넘어서는 것이 참람되나 지금은 당시에 일컫던 바를 따라 그것을 적음으로써 사실을 남긴다”<sup>76</sup>는 식의 직서적(直敘的) 서술 태도를 견지하면서, 동시에 고려 세계의 신성성에 전면 찬동하는 황탄한 관점을 배격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황 속에서, 『고려사』의 찬자는 『편년통록』을 ‘후대에 근거함이 없이 마구 뽑은 잡기’ 등으로 폄훼하는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고려 세계 재구성을 위한 핵심 전거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당시 고려 세계 구성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문헌이 더 있었음에도 굳이 『편년통록』을 중점적으로 인용한 것은 『편년통록』이 고려 세계에 대한 신화화의 전략을 취하면서 동시에 유교사관의 영향으로 역사화의 여지를 품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고려 왕실 계보의 탈신성화 담론을 도출하기가 보다 용이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논지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본문에서 ‘고려세계’를 담고 있는 두 텍스트를 비교한 결과, 실제로 『고려사』 「고려세계」는 신화적 성격이 강한 『제왕운기』 「본조군왕세계연대」에 비해 훨씬 역사화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년통록』을 인용함에 따라 「고려세계」는 여전히 신이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역사화 전략을 통해 텍스트 내적으로 꾸준히 절하되고 있다. 가령 『제왕운기』가 호경의 신화라는 사건을 명시적으로 묘사한 반면 「고려세계」는 암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거나, 「고려세

75 “其書法, 準兩漢書及元史, 事實與言辭, 皆書之.”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고려사』 편찬 범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4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4r) (접속일: 2026. 8. 25.).

76 “雖涉僞踰, 今從當時所稱, 書之, 以存其實.”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고려사』 편찬 범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4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4r) (접속일: 2026. 8. 25.).

계」가 강충의 인격적 모계를 명시하는 반면 『제왕운기』는 그것을 불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계보의 신성함을 상상하게 한다거나, 작제건 대의 금기 위반 모티프를 통한 신화 시대의 중언을 고한 「고려세계」와 달리 『제왕운기』는 이를 생략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당 숙종의 계보 및 도선의 도참에 대한 대항 담론의 적극적 배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당초 신이사관에 입각해 고려 세계의 정통성을 옹호하고자 한 『제왕운기』와 뚜렷이 변별되는 지점으로, ‘고려세계’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 텍스트의 대조적인 신화학적 독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신+화적 텍스트란 “사실에 기초한 기록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록도 존재”<sup>77</sup> 하듯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제를 자연화하고 재편하려는 찬자들의 역동적인 담론적 산물임을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고려사』

『제왕운기』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사 > 권별보기 > 고려세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itemLevelKrList.do?levelId=kr\\_\\$s02](https://db.history.go.kr/goryeo/itemLevelKrList.do?levelId=kr_$s02)(접속일: 2026. 8. 25.).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하늘이 호경을 살리고 호경은 산신이 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2r\\_002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2r_0020)(접속일: 2026. 8. 25.).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호경이 강충을 낳고 강충의 아들 보육이 신이한 꿈을 꾸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2r\\_003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s02r_0030)(접속일: 2026. 8.25.).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작제건의 탄생”,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

- 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050(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작계건이 약속을 어기자 용왕의 딸이 사라져버리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08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080)(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용건이 태조를 낳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09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090)(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이제현의 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2r_0100)(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세계 > 『고려사』편찬 법령”,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4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kr_04r)(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제왕운기(帝王韻紀) 권하(卷下) >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itemId=mujw&levelId=mujw\\_002r\\_013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itemId=mujw&levelId=mujw_002r_0130)(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제왕운기(帝王韻紀)를 바치는 표문[帝王韻紀進呈列表]”,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1r](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1r)(접속일: 2026. 8. 25.).
- 국사편찬위원회, “제왕운기 > 자고로 천명(天命)을 받아 군왕(君王)이 되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https://db.history.go.kr/goryeo/level.do?levelId=mujw_002r_0130_0010)(접속일: 2026. 8. 25.).

## 논저

- 김미란(1996), 「建國神話의 受容樣相과 그 意味: 高麗時代를 중심으로」, 『畿甸語文學』 10-11,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보현(2006), 「조선 건국 담론의 신화화 방식 연구: 『룡비어천가(龍飛御天歌)』와 『태조실록총서(太祖實錄總書)』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1, 시학과 언어학회.
- 김열규(1977), 「고려왕조전승의 무속소」,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 김지영(2010), 「지리산성모에 대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인식과 태도: 지리산 유람록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4, 한국역사민속학회.
- 나희라(2025a), 「여신 숭배의 전통과 고려시대 성모 인식」, 『여성과 역사』 42, 한국여성사학회.
- 나희라(2025b), 「지리산성모 위숙왕후설에 대한 고찰」, 『남도문화연구』 56,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 문창로(2014), 「『韓國 古代 建國神話』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학논총』 4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대복(2011), 「『高麗世系』에 나타난 始祖神話의 性格과 文學史的 意味」, 『어문연구(語文研究)』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두포(1965), 「金寬毅設 高麗世系의 考察: 帝王說화의 一例로」, 『論文集』 2, 慶北工業專

門大學.

박인호(2011),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브루스 링컨(2009),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서울: 이학사.

오세정(2015), 「고려 건국신화의 여성인물 연구」, 『우리문화연구』 48, 우리문화회.

윤경진(2023), 「『高麗世系』의 서사와 역사계승의식」, 『사립』 84, 수선사학회.

이강옥(1987), 「고려국조신화 「고려세계」에 대한 신고찰: 신화소(神話素) 구성과정에서의 변개양상과 그 현실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13(3), 일지사.

이유진(2003), 「끊임없는 담론: 신화의 역사화, 역사의 신화화」, 『중국어문학논집』 24, 중국어문학연구회.

이정란(2014),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왕권의 변동」, 『한국사학보』 55, 고려사학회.

이정훈(2017), 「고려시대 ‘고려세계(高麗世系)’에 대한 기록과 인식」, 『역사와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이지영(2016),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44, 동아시아고대학회.

이창식(2019), 「〈제왕운기(帝王韻紀)〉에 인용된 설화의 성격」, 『동아시아고대학』 54, 동아시아고대학회.

장영희(2009), 「『高麗世系』『編年通錄』의 敘事性 研究」, 『漢文學報』 21, 우리한문학회.

장정태(2010),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간신앙: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2, 한국사상문화학회.

정중환(1963), 「高麗王室의 先代世系 說話에 대하여」, 『東亞論叢』 1, 東亞大學校.

조현설(2000), 「고려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전문학회.

최원석(2010), 「지리산권의 도선과 풍수 담론: 풍수지리설의 사회적 재구성」, 『남도문화연구』 1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한승훈(2021), 『무당과 유생의 대결』, 사우.

허인옥(2003),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 『사충』 5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Lincoln, Bruce (1989), *Discourse and the construction of society: Comparative studies of myth, ritual,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26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26년 8월 3일, 게재 확정일: 2026년 8월 10일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icization and Mythologization of the Goryeo Foundation Myth

Ji, Haein\*

Focusing on *Goryeo segye* and *Jewang ungi*

*Goryeo segye* (高麗世系) is the founding and ancestral myth of the Goryeo dynasty recorded in *Goryeosa* (高麗史), based on Kim Gwanui's (金寬毅) *Pyeonnyeon tongrok* (編年通錄), and extensive historical and literary research on this myth has accumulated over the years. However, comparative mythological studies reading the *Goryeosegye* alongside the “Bonjo gunwang segye yeondae” (本朝君王世系年代) in the second volume of *Jewang ungi* (帝王韻紀), which records the same ancestral lineage, remain scarce. Utilizing Bruce Lincoln's concept of myth as an ideology in narrative form, this study compares the strategies of mythologization and historicization employed by the compilers of both texts, thereby critically examining the ideological mechanisms embedded within them.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Bonjo gunwang segye yeondae” of *Jewang ungi* actively pursued the mythologization and legitimization of the Goryeo ancestral myth based

---

\* Ph.D. Candidate,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Major in Cultural Informatic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n a supernatural view of history, such as the explicit deification of Hogyong (虎景), the defense of the Tang Emperor Sukjong lineage, and Monk Doseon's (道詵) geomantic prophecy mandated by the Holy Mother of Mount Jirisan. In contrast, while the compilers of the *Goryeosa* distrusted the supernatural elements in *Pyeonnyeon tongrok* as absurd and groundless, they paradoxically appropriated the Confucian historicization already latent within the text as a tool for demythologization. The implicit deification of Hogyong, the explicit identification of Gangchung's (康忠) human maternal lineage, the violation of the taboo in the tale of Jakjegeon (作帝建), and the reduction of Monk Doseon's prophecy to a historical event were not mere passive repetitions of the *Pyeonnyeon tongrok*; rather, as evidenced by the strategic placement of powerful counter-discourses, such as Yi Jehyeon's (李齊賢) critical appraisal and Minji's (閔漬) oral transmission, they served to fracture the divine authority of the Goryeo dynasty and achieve systematic historicization and demythologization. In conclusion, the distinct narrative stances of these two texts demonstrate that they are the products of the compilers' dynamic ideological practices to naturalize and legitimate the ruling order by modifying myth amid the sociopolitical upheavals of their respective eras.

**Keywords** Mythology, Foundation Myth, Historicization, *Goryeo segye*, *Jewang ungi*